

## 25년째 낙농을 하며 1일 1.5톤의 원유를 생산



김 상 호 / 송라목장  
경기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 116-4

우리 송라목장은 낙농을 시작한지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착유우 52두, 육성우 45두 등 총 113두를 사육하고 1일 1.5톤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낙농 전업농 목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업농을 계획하는 낙농가들중에서 부부 노동력으로 35두 이상의 착유를 하려고 한다면 여건에 맞게 시설투자를 해서 자동화시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75년 낙농과 인연을 처음 맺을 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젖소 송아지가 귀해서 송아지 4두를 구입하는데도 상당히 비싸게 주고 구입한 기억이 난다.

이후 5년 동안은 시련의 연속으로 초임우 1두를 포함해 3두의 소를 실패하기도 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소를 더 늘려 나갔다. 소들이 늘어나면서 목장도 여러번 옮겼고 시설투자를 계속 한 결과 현재의 위치에서 현대시설을 갖춘 송라목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우리목장을 소개하자면 연면적이 3,300평으로 퇴비사를 포함한 우사가 700여평이고 야외 운동장이 1,500여평, 여기에 엔셀리지 저장사일로 등으로 되어 있다.

목장일을 하면서 목장이 점점 발전하였고 이러 던 중에 농도원

목장을 견학할 기회가 주어졌고 95년 5월 정부의 축사시설자금을 융자받아 착유실(2×3오토덴덤), 자동급이기, 톱밥발효우사(260평)를 신축하여 부부노동력으로 50두 이상의 착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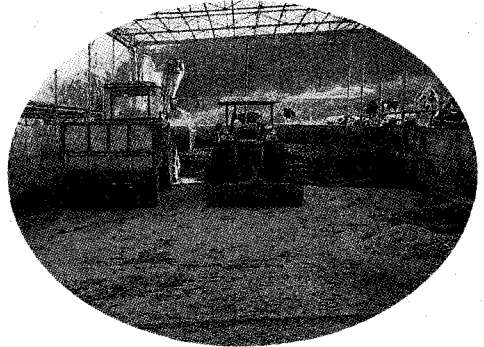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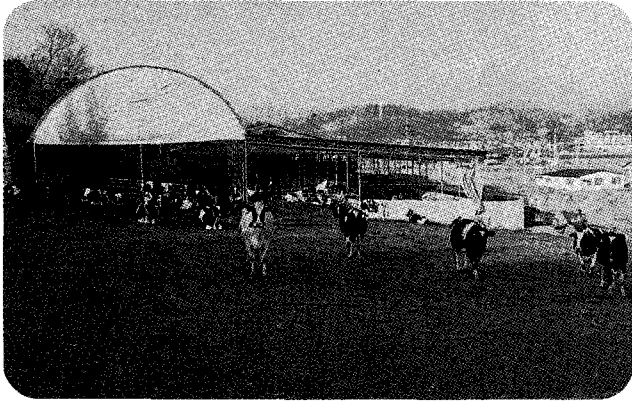
목장시설 중 300여평의 우사와 착유실 및 자동사료급이기 등을 설치하는데 1억 8천만원내외가 소요되었고 여기에 토지구입비와 기타시설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정부의 융자금도 1억 3천여 만원을 받게 되었다.

작년부터는 원금상황이 시작되어 부담이 더욱 크지만 현재의 상태로 낙농여건이 유지된다면 이자와 원금을 약간씩 상환해 나갈 수 있고 앞으로 융자금만 상황이 끝나면 전업농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소들은 항상 내 몸같이 깨끗하게 해주고 착유기의 맥동기 압력을 적당하게 맞추어 주며, 운동장이나 우사의 소독을 철저히 해주며 잠재성 유방염은 건유기에 치료를 완전히 해주는 등 이렇게 소들을 관리하다보니 착유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60두를 착유하는데 시간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우리목장에는 연평균 산유량이 1만kg 이상 되는 소들이 많이 있으며 최고 15,230kg을 생산한 소도 있다. 이들을 개체관리하기 위해 자동사료급이기로 급여량 4kg까지는 4회로, 6kg이상은 6회로 분산 급여해 주고 있어 사료의 효율을 높여 주고 있다.

육성우 관리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해 주고 특히 우군을 3개월령, 6개월령, 13개월령, 16



개월령, 초임우 등 5개로 분리해 주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해 주고 있다.

자녀들은 성권(고1), 유미(중1)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위해 목장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틈틈이 목장 일을 도와주고 있다. 특히 아들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서 방학이 되면 조사료급여를 맡아서 할 정도로 많이 도와준다. 본인은 장래에 목장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

25년 이상 목장일만을 해오면서 얻은 경험을 위주로 낙농가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1. 낙농전업농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 착유우 30두이상, 1일 1톤이상 납유, 조사료작물포 1만평이상, 각종 농기계 등을 갖추면 좋겠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경험에서 오는 관리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과 두수만 갖추었다고 모두 전업농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 하루일과의 대부분을 소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 간혹 자동화시설을 했다고 해서 착유시간 이외에는 거의 소들과 함께 하지 않는 낙

농가들이 목장의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면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생각된다.

3. 질병은 발생한 뒤에 치료해주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4. 현재의 사육두수와 목장여건, 앞으로의 계획과 자금조달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투자를 해야한다. 무리한 시설투자는 안한 것만 못하다.

부부 노동력으로 35두 이상의 착유를 하려고 한다면 시설투자를 해서 자동화시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나이가 젊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으나 나이가 들은 낙농가일수록 자동화시설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소들의 질병은 거의 예방해주고 있으며 수정을 여러번 시켜도 수태가 되지 않는 등 번식장애를 나타내는 소들은 빨리 도태를 시킨다. 여러 마리의 소들을 관리하면서 한 두마리의 소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벗짚은 암모니아처리를 해서 급여하고 있는데 이유는 저장성이나 기호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하지

만 단백질이 높아 이를 고려해서 배합비를 짜지 않으면 번식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주의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툽밥발효우사와 운동장이 넓어 소들이 깨끗하고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어 후리스틀우사와 툽밥발효우사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장점들만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작년에는 많은 지역에서 수해로 많은 피해를 보았고 복구하느라 고생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목장도 뒷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집의 한쪽 담벼락이 무너지고 착유실의 반 이상이 진흙으로 꽂았으며, 우사바닥도 진흙 번쩍이 되어서 이를 치우고 복구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신 주위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 한다.

이때 착유를 할 수 없어 며칠동안 착유를 하지 못했더니 유방염이 많이 발생해서 10마리의 고능력우를 도태시키기도 하였으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 피해는 몇 배 더 늘어났을 것이다. ☺

〈연락처 : 0351-862-2162〉